

# 현대·기아차 상품성·안전성 입증...글로벌 수상 잇따라

현대자동차그룹이 세계 곳곳에서 그 상품성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

각종 미디어가 선정한 '올해의 차'는 물론 대륙별 최고의 차로 선정되는 기업을 토했다. 여기에 안전에서도 잇따라 세계 최고 등급을 기록하며 현대와 기아차가 국내외에서 순항하고 있다.

◇EV9 세계 3대 '올해의 차' 후보로 선정...아이오닉6 대륙별 다관왕=4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자동차 기자협회가 주관하는 '스코틀랜드 올해의 차(SCOTTY)'에서 아이오닉6가 '올해의 차'에 선정된 것을 비롯해 전체 18개 부문에서 5개 부문 수상 성과를 냈다.

먼저 현대차 아이오닉6는 스코틀랜드 최고의 차에 시상하는 '올해의 차'에 선정됐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결정되는 '올해의 차' 선정에서 아이오닉6는 "단 하나의 눈에 띄는 차"라는 극찬을 받았다.

아이오닉6는 '올해의 차' 외에도 '대형 EV' 부문 올해의 차에 선정되며 2관왕을 차지했다. 아이오닉6는 '운전자 친화적인 차'라는 평가를 받으며 치열한 대형 EV 부문에서 최고의 차로 선정됐다.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은 '중소형 EV' 부문 올해의 차에, 기아 EV6 GT는 '고성능 차' 부문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됐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최고의 사후 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브랜드에 수여하는 '애프터세일즈' 부문 상을 수상했다.

이뿐만 아니다. 앞서 아이오닉6는 '2024 아일랜드 올해의 차'에서 최고의 차에 주어지는 '올해의 차'에 선정됐고, 영국의 유력 자동차 전문지 탑기어는 현대차의 아이오닉5 N을 '올해의 차'로 기아 EV9을 '올해의 패밀리카'로 선정했다.

또한 독일 유력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 빌트에서 주관하는 '골든 스티어링 휠 어워드'에서도 현대차 아이오닉6가 미드사이즈(Mid-Size) 부문, 기아 EV9이 패밀리카 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기아 EV9은 또 유럽에서 연이은 수상과 세계 3대 자동차 상으로 꼽히는 북미, 유럽, 세계 올해의 차 후보에 오르며 우수한 상품성을 입증하고 있다.



기아 EV9

## 기아 EV9 '덴마크 올해의 차 2024' 올해의 혁신상 수상 스페인 '라 반가르디아'·영국 '탑기어 어워즈' 올해의 차 아이오닉5·스포티지, 美 IIHS 충돌평가 '가장 안전한 차'

EV9은 덴마크 자동차 기자 협회가 주관하는 '덴마크 올해의 차 2024'에서 '올해의 혁신상'을 받았다.

이와 함께 EV9은 스페인 유력 일간지 '라 반가르디아'가 전문가 심사단과 독자들의 투표로 선정한 '올해의 차 2023'도 수상했다.

특히 지난달 30일 영국 유력자동차 전문 매체 탑기어(TopGear)가 주관하는 '2023 탑기어 어워즈'에서 EV9은 '올해의 패밀리카'를 수상하기도 했다.

EV9은 기아의 전동화 전용 플랫폼 E-GMP를 적용한 3열 대형 SUV로 ▲탑승객을 위한 여유로운 공간과 다양한 2열 시트 옵션 ▲99.8kWh 대용량 배터리 탑재·400/800V 멀티 초고속 충전 시스

템·V2L 등 혁신적인 전동화 사양은 물론 ▲기아 커넥트 스토어-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진화하는 자동차(SDV)로서의 우수한 상품성을 갖췄으며 기아 디자인 철학 '오픈 잇 유나이티드'를 바탕으로 대비적인 조형의 조화를 통해 아름다운 디자인을 갖췄다.

EV9은 현재 '2024 북미 올해의 차' 유틸리티 부문 최종 후보와 '2024 유럽 올해의 차' 최종 후보에도 올라 있으며, '2024 월드 차 어워즈'에서 세계 올해의 차·세계 올해의 전기차·세계 올해의 자동차 디자인까지 모두 3개 부문에 후보로 선정되는 등 세계 3대 자동차 상인 북미, 유럽, 세계 올해의 차



기아 스포티지

모두 후보에 오르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엄격해진 기준에도 안전 세계 최고=이날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와 기아 스포티지가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가 발표한 충돌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이하 TSP+, Top Safety Pick+)' 등급에 선정됐다.

이번 충돌평가 결과는 올해부터 더욱 강화된 평가 기준을 충족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고 현대차그룹을 밝혔다.

올해부터는 측면 충돌과 보행자 충돌 방지 평가 기준을 높이고 헤드램프 평가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 우수 등급을 획득하기가 어려워졌다.

TSP+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운전석 스몰 오버랩 ▲조수석 스몰 오버랩 ▲전면 충돌 ▲측면 충돌 등 총 4개 충돌 안전 항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훌륭함(good)'을 획득해야 한다.

또한 주-야간 전방 충돌방지 시스템 테스트(차량과 보행자)에서 '우수함(advanced)' 이상의 등급

을, 전조등 평가는 차량의 전체 트림에서 '양호함(acceptable)' 이상 등급을 받아야 한다.

IIHS는 1959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매년 미국 시장에 출시된 차량의 충돌 안전 성능과 충돌 예방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과를 발표한다.

최고 안전성을 나타낸 차량에는 TSP+ 등급을, 양호한 수준의 성적을 낸 차량에는 TSP 등급을 매긴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2월 ▲제네시스 G90 ▲현대차 팰리세이드 ▲기아 텔루라이드, 8월 제네시스 ▲GV60 ▲GV70 ▲GV70 전동화 모델 ▲GV80 ▲현대차 아이오닉 6, 10월 제네시스 ▲G80 ▲G80 전동화 모델 등 10개 모델이 강화된 평가 기준에서 TSP+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모든 차량을 개발함에 있어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높은 수준의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4일 박광태 GGM 대표이사 등 공장 관계자들이 전기차 생산시설 연동 시운전 작동 버튼을 누르고 있다.

(GGM 제공)

## GGM 전기차 생산시설 구축 마무리...연동 시운전 개시

### 내년 2월 시험생산

전기차 생산에 나선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설비구축을 끝내고 시운전에 들어갔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4일 "이날 오전 조립공장에서 전기차 연동 시운전 개시식을 열고 전기차 생산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연동 시운전은 각 설비 분야별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시 모든 시스템을 연계한 상태에서 최

종 점검하는 것으로, 시험생산 이전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앞서 지난달 19-26일 차체 공장 연동 시운전을 마쳤으며, 27일부터 30일까지 도장공장 연동 시운전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연동 시운전이 마무리되면, 내년 2월 시험생산을 거쳐 하반기부터 전기차 양산 체제에 돌입한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전기차 생산 설비구축으로 멈춰섰던 기존 캐스터 생산은 6일 차체 공장, 7일

도장공장을 재가동을 거쳐 11일부터 본격 재가동된다. 공장이 잠시 멈췄지만 올 생산 목표인 4만 5000대 달성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광태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는 "지난 한 달 동안 전기차 설비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연동 시운전에 들어가는 등 전기차 생산을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는 만큼 내년 2월 시험생산을 거쳐 하반기에는 최고 품질의 전기차를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르노코리아·쉐보레, 연말연시 차량 정비행사

자동차 업계가 연말연시를 맞아 고객 대상 차량 정비행사를 진행한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내년 1월까지 르노코리아 전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한 겨울맞이 특별 정비할인 캠페인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전국 400여개 르노코리아 서비스 네트워크를 방문한 MY르노코리아 애플리케이션 회원 고객은 공

임을 제외하고 15% 할인된 가격으로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다. 일반 고객은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캠페인 대상 배터리는 신차출고용(OE)부터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EFB, AGM 배터리까지 모두 포함된다.

또 캠페인 기간 MY르노코리아 앱에 신규 가입한 고객에게는 재입고 시 사용할 수 있는 정비 할인

쿠폰 2만원권도 증정한다.

쉐보레는 장거리 운행이 많은 연말을 맞아 오는 4~15일 8개 항목을 무상 점검하는 '2023 윈터 쉐보레 오토케어 서비스'를 실시한다.

무상 점검 항목은 엔진오일과 오토미션 오일, 브레이크액, 부동액, 브레이크 패드, 에어컨 필터, 배터리, 타이어다. 이번 서비스는 서울과 인천, 부산 등 쉐보레 지역 서비스센터를 포함해 전국 쉐보레 서비스 네트워크 397개소에서 진행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내년 자동차 내수 줄고 수출 증가”

###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망

올 수출 690억달러 '역대 최대'

현대차그룹, 올해도 글로벌 3위

내년 국내 자동차시장 규모는 다소 축소하겠지만,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자동차 수출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자동차 생산은 보험세가 예상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4일 '2023년 자동차산업 평가 및 2024년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자동차 내수 시장의 경우 완만한 경기 회복과 주요 전동화 모델 출시에도 전년 대비 1.7% 감소한 171만대가 판매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의 수요 정상화와 하반기 금리 인하에 따른 선진 시장 소비 심리 회복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한 275만대가 팔리고 수출액도 3.9% 상승한 71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은 견조한 글로벌 수요를 바탕으로 전년 대비 0.7% 증가한 417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올해는 국내 자동차 산업이 수출액 기준 최고 실적을 거둔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올해 내수는 전년 대비 3.3% 증가한 174만대, 수출은 전년 대비 17.4% 증가한 270만대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이러한 수출 성과는 2016년 이후 최고 실적으로, 특히 올해 1~10월 전체 전기차 수출은 전년 대비

66.3%, 대미 전기차 수출은 77.0% 급증했다.

완성차 수출액도 북미, 유럽을 포함한 주요 시장의 꾸준한 수요와 친환경차,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등 고부가가치 차량 수출 확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27.2% 상승한 약 69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연간 자동차 수출액 690억달러는 역대 최대 수치다. 기존 연간 최대 수출액은 지난해 541억 달러였다.

생산도 내수 증가와 지속적 수출 회복세로 전년 대비 10.2% 증가한 414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 400만대 돌파는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

이와 함께 세계 자동차 시장은 반도체 부족과 같은 공급망 차질에 따른 병목 현상 해소로 생산이 정상화해 대기 수요를 빠르게 충족시켰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올해 글로벌 자동차 판매 대수는 전년 대비 8.5% 증가한 9102만대 수준으로, 미국(11.0% ↑)은 물론 서유럽(11.5% ↑)과 일본(11.4% ↑),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21.3% ↑) 등에서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였다.

보고서는 또 현대차그룹(현대차·기아·제네시스)이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글로벌 완성차 수출 3위에 오른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1~10월 기준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 7.7%로 3위를 유지 중이다. 1위는 일본 도요타, 2위는 독일 폭스바겐으로 나타났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현대차 한재필 영업부장 '상용차 판매거장' 올라

### 33년간 2500대 판매

현대자동차는 4일 인천트럭지점 한재필(사진) 영업부장이 상용차 누계 판매 2500대를 달성해 상용차 '판매거장'에 올랐다고 밝혔다.

상용차 판매거장은 상용차 누계 판매 2500대를 돌파한 우수 영업사원에 주어지는 칭호로, 한 영업부장은 그룹 역대 다섯 번째이자, 입사 후 33년 만에 쾌거를 이뤘다.

한재필 영업부장은 "지금까지 찾아준 소중한 고객들과 항상 응원을 보낸 가족 및 동료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판매거장"에 선정될 수 있었던 비결로 "현대차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모든 고객을 매 순간 진심으로 대한 것"을 꼽았다.



한편 현대차는 일선 영업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카마스터를 격려하고 건강한 판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판매 명예 포상 제도 ▲전국판매왕(Master of the Year) ▲더블레스 어워즈 등 다양한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판매 명예 포상 제도는 상용부문의 경우 ▲1000대 달성 시 '판매장인' ▲1500대 '판매명장' ▲2000대 '판매명인' ▲2500대 '판매거장'이란 칭호와 함께 부상을 수여하는 제도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